



문화와 여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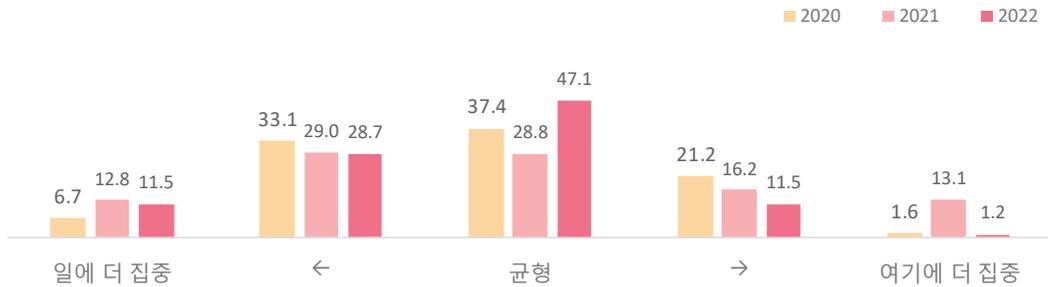
03-01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 '일에 더 집중' > '여가에 더 집중' 순

- 직업이 있는 연수구 구민 중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비율이 47.1%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일에 더 집중'(40.2%), '여가에 더 집중'(12.7%) 순임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비율은 전년(28.8%) 대비 18.3%p 증가하였으며 '일에 더 집중'하는 비율은 전년(41.8%) 대비 1.6%p 감소함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비율은 연령별로는 30~3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3-26〉 일과 여가의 균형



〈표3-27〉 일과 여가의 균형(%)

구분	연도	일에 더 집중	-----	균형	-----	여가에 더 집중	일에 더 집중	균형	여가에 더 집중
		(1)	(2)	(3)	(4)	(5)	(1)+(2)	(3)	(4)+(5)
연수구	2019	13.3	25.0	45.2	12.3	4.3	38.3	45.2	16.5
	2020	6.7	33.1	37.4	21.2	1.6	39.8	37.4	22.8
	2021	12.8	29.0	28.8	16.2	13.1	41.8	28.8	29.4
	2022	11.5	28.7	47.1	11.5	1.2	40.2	47.1	12.7
성별	남성	12.9	29.9	46.4	9.8	1.0	42.7	46.4	10.8
	여성	10.1	27.6	47.8	13.1	1.4	37.7	47.8	14.5
연령	13~19세	26.4	29.7	35.2	8.7	-	56.1	35.2	8.7
	20~29세	8.5	26.4	51.5	12.9	0.8	34.8	51.5	13.7
	30~39세	11.6	26.2	54.6	7.0	0.6	37.9	54.6	7.6
	40~49세	15.2	29.8	46.5	7.9	0.7	45.0	46.5	8.6
	50~59세	10.0	34.4	44.4	11.0	0.2	44.4	44.4	11.2
	60세 이상	4.9	25.7	46.6	19.0	3.8	30.6	46.6	22.9

자료 : 2022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SOCIAL INDICATORS OF INCHEON